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 강조
 - 미국 6월 구인건수, 작년 9월 이후 최저. 노동 수급 불균형 완화 신호일 가능성
 - 중국 지도부, 금년 성장률 목표의 의무적 달성은 불필요
 - 호주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상. 향후 정책은 경제여건을 감안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때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1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국과의 긴장 고조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15.1원, +10.4원) 0.8% 상승, 한국 CDS 보합

		8/2일	8/1일	전일대비			8/2일	8/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91.2	4,118.6	-0.67%	국채 금리 10y	미국	2.75%	2.57%	18bp
	유럽	436.07	437.46	-0.32%		독일	0.82%	0.78%	4bp
	중국	3,186.3	3,260.0	-2.26%	CDS 5y	한국	44bp	44bp	0bp
	일본	27,595	27,993	-1.42%		중국	87bp	84bp	3bp
	한국	2,439.6	2,452.3	-0.52%	위험 지표	EMBI+	-	446	-
환율	달러지수	106.35	105.45	0.85%		VIX	23.93	22.84	4.77%
	유로화	1.0166	1.0262	-0.94%		WTI유	94.42	93.89	0.56%
	엔화	133.17	131.61	-1.17%	원자재	구리	351.9	354.3	-0.68%
	위안화	6.7525	6.7688	0.24%		금	1,760.4	1,772.2	-0.66%
	원화	1,304.7	1,304.0	-0.0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 강조

-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연준이 상당 기간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높아진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종료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부연
-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으며,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로 선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를 수개월 연속해서 보기 원한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있다는 결론을 지나치게 빨리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첨언
- 반면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는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9월 FOMC에서 0.5%p 인상이 적절하지만, 0.75%p 인상도 가능하다고 언급. 정책금리는 내년에 3.75~4.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
-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으로 조만간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추기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구인건수, 작년 9월 이후 최저. 노동 수급 불균형 완화 신호일 가능성

- 해당 건수는 1070만건으로 전월(1130만건) 대비 60.5만건 줄었으며, 이는 '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 다만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우위에 있으며, 이는 임금상승 지속 등을 유도
- Navy Federal Credit Union의 Robrert Frick은 경기둔화 등으로 구인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

■ 미국 2/4분기 가계부채, 사상 최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이 원인

- 뉴욕 연은에 따르면, 해당 분기의 가계부채는 16.15조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증가 등에 기인.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 시 가계부채는 2조 달러 이상 증가. 연체율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

■ ECB, 역내 국가들의 러우 전쟁 관련 경제 대책 효과는 지출 규모를 하회할 전망

- 유로존 국가들이 러우 전쟁의 영향을 완충시키기 위해 지출한 연료 보조비 등의 지원책 규모는 GDP의 0.9%. 하지만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금년 GDP가 0.4%p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중국 지도부, 금년 성장률 목표의 의무적 달성은 불필요

- 지난 주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인사들은 5.5%의 금년 성장률 목표가 일종의 지침일 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또한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해당 목표를 사용하지도 않을 방침

■ 일본 재무상, 엔화 환율은 경제 기조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움직일 필요

-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장기간 하락하던 엔화 가치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환율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 한편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일본은행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

■ 이번 주 예정된 OPEC+ 회의, 생산 확대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상이

- 사우디의 Faisal bin Farhan 외교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나,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에너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발언. 반면 여타 관계자들은 증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 호주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상. 향후 정책은 경제여건을 감안할 계획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0.5%p 높은 1.85%로 상향. 로우 총재는 통화정책 경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나, 금리경로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2 현지시각 기준)

- 영국 7월 Nationwide 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비): 11%, 6월(10.7%), 예상치(11.5%)

■ 주요 경제 이벤트(8/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ISM 서비스 PMI, 6월 공장수주,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 및 소매매출
- 미국 및 유로존 7월 S&P 글로벌 종합 PMI(확정치),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행정부, 고물가 해결을 위해 레이건 시대에 사용된 해법의 검토가 요구 - WSI**
(Lessons From the Great Inflation of 1973-81)
 - 과거 레이건 대통령은 고물가 및 과다한 정부지출에 대응하여 경기침체기 동안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세금 감면을 통해 저축 및 투자를 촉진. 연준의 통화긴축 등으로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는 20.5%까지 상승하며 수요를 억제
 - 또한 경제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 및 상품수송 비용을 낮춰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 이에 1984년 물가는 안정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7.2%를 기록하며 '08년까지 경제회복이 지속
 - 이에 반해 바이든 정부는 고물가 및 성장둔화 여건에서 세금인상 및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 또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1970년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반복. 이에 향후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고물가 해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우크라이나의 재정 악화, 유럽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 블룸버그**
(Europe Shouldn't Let Ukraine Go Into Default)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6개월 간 전쟁으로 고투. 물리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으로도 부도 상황에 직면. 우크라이나는 전비부담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선전할 수 있는 내용
 - 유럽은 당초 계획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 유럽 당국이 러시아 제재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
- **주요국 국채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긴축정책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에 기인 - 블룸버그**
(Chaos in Bond Market Is Dangerous Side Effect of Inflation Fight)
- **미국의 자유무역 기조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에 효과적 방안 - WSI**
(Free Trade Can Fight Inflation)
- **유럽의 러시아산 디젤 수입 증가, 전면 수입금지 계획의 어려움을 시사 - Financial Times**
(European imports of Russian diesel jump, highlighting challenge to EU plans for ba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